

##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국민학생의 머릿니 감염 상황(1985)

경상북도 문경군보건소\*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배기수\* · 허선\*\*

최근, 우리나라에서 머릿니는 충청남도 서산군 국민학생에서 73.5%(이 등, 1984), 경상북도 영양군 국민학생 및 중학생에서 44.5%(김 등, 1984)가 감염되어 있다는 보고에서와 같이 일부 농촌지역에 고도의 유행이 있음이 알려져, 일차보건 및 학교보건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자들은 농촌지역인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국민학생의 체질검사 중 머릿니가 유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감염 상황을 파악하고자 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985년 6월, 면내 3개 국민학교 및 1개 국민학교 부설 유치원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머릿니 성충이나 서케 보유 여부를 검진하였다.

총수검자 420명 중 386명이 감염되어 총감염률은 91.9%였고, 학교별로 88.8%에서 96.1%까지 차이를 보였다( $p < 0.05$ , Table 1). 남학생은 225명 중 200명이 감염되어 88.9%, 여학생은 195명 중 186명이 감염되어 95.4%의 감염률을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감염률이 높았다( $p < 0.05$ , Table 2). 학년별로는 유치원이 88.5%,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각 100, 100, 95.8, 90.4, 89.7, 80.0%의 감염률을 보였다(Table 2).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감염률이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앞의 다른 지역에서의 보고들과 일치하였다. 이 지역에서 91.9%라는 높은 유행에 대

**Table 1.** Head louse infestation rate by school in Sanbuk-myon, Mungyong-gun, Kyongsangbuk-do (1985)

Name of school	No. exam.	No. infested(%)
Chang-gu	153	147(96.1)
Wolchi*	187	166(88.8)
Igok	80	73(91.3)
Total	420	386(91.9)

\* Including a kindergarten

해 명확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개인 및 집단 위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머릿니에 의한 질환 성질은 두부 습진이 생길 정도의 중감염을 제외하고는 임상적으로 무시되기 쉬우나, 감염된 어린이에게 가려움증이 심하고 남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단 구제가 필요하다. 머릿니 구제를 위해 폴란드에서 살충제 삼푸로 2,873명을 치료 후 8개월 추적검사에서 31.7%가 남아 있었고(Pitrowski, 1982), 유행 지역에서 특별한 처치없이 1년 후에 관찰해본 결과 감염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고(박, 1986)에 비추어 머릿니 구제가 위생개선과 화학요법의 병행없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서도 보건교육 이외

**Table 2.** Head louse infestation rate by age and sex

Grade in school	Total		Male		Female	
	No. exam.	No. infested(%)	No. exam.	No. infested(%)	No. exam.	No. infested(%)
*	26	23(88.5)	14	11(78.6)	12	12(100)
1	57	57(100)	37	37(100)	20	20(100)
2	56	56(100)	25	25(100)	31	31(100)
3	72	69(95.8)	41	38(92.7)	31	31(100)
4	51	47(90.4)	24	20(83.3)	28	27(96.4)
5	87	78(89.7)	46	37(80.4)	41	41(100)
6	70	56(80)	38	32(84.2)	32	24(75.0)
Total	420	386(91.9)	225	200(88.9)	195	186(95.4)

\* Kindergarten

\* 현주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역학적 조사의 반복 시행과, 벤질벤조에이트 등의 약제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는 집단 화학요법의 실시 및 가정과 학교에서 머리를 자주 감기우는 등의 위생 개선이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김동근·박찬병·허선(1984) 경상북도 영양군 학생들

의 머릿이 감염 상황. 기생충학잡지, 22(2):273-276.  
李純炯·吳昌完·蔡鍾一(1984) 충남 서산군 國民學生에 있어서 머릿이 감염 상황. 기생충학잡지, 22(1):141-143.

박찬병(1986) 경상북도 영양군 학생들의 머릿이 감염 상황 추시. 기생충학잡지, 24(1):106.

Pitrowski, F. (1982) Head infest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Gdańsk voivodeship in 1979. *Wiadomosci Parazytologiczne*, 28:133-137.

=Abstract=

Head Louse Infestation among School Children in Sanbuk-myon, Mungyong-gun, Kyongsangbuk-do (1985)

Ki-Soo Pai and Sun Huh\*

*Mungyong-gun Health Center, Kyongsangbuk-do 643 and Department of Parasitolog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10, Korea*

In order to know the prevalence of head louse among the school children in rural area, we visited 3 primary schools and a kindergarten in Sanbuk-myon, Mungyong-gun, Kyongsangbuk-do in July 1985, and examined the children to identify the adult worms of head louse and/or its nits on the hair.

The overall infestation rate was 91.9% among 420 children examined, a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schools ( $P<0.05$ ). The school girls' rate, 96.1% was higher than that of boys' 88.9% ( $P<0.05$ ). By grade, the rate of infant school was 88.5% and 1st to 6th grade were 100, 100, 95.8, 90.4, 89.7, 80.0% respectively.

Above result indicates that the head louse is an important health problem in this community. Therefore, the chemotherapy and the effort to improve the hygiene are necessary in this community by physicians, teachers and health administrators.